방일영문화재단

제 48 호
2023.12.31
www.bangfound.org
The Bang Il-young Foundation Newsletter

제35회 '이중섭미술상' 시상식

풍자미술의 대가 윤동천 작가 수상-올해부터 재단 목적사업

역대 이중섭미술상 수상 작가와 이중섭미술상 운영위원과 심사위원, 재단 변용식 이사장과 조선일보 홍준호 발행인이 자리했다.

우리 재단이 올해부터 신규 목적사업으로 정하고 처음으로 시행한 이중섭미술상 제35회 시상식이 11월 9일 서울 중구 광화문 '아트조선스페이스' 에서 열렸다. 수상자의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수상 기념전도 이날 함께 개막했다.

수상자인 서양화가 윤동천 작가는 이날 상금 2000만 원과 상패를 받았다. 윤 작가는 일상에서 다양한 소재로 풍자적 작업을 해온 작가다. 모더니즘 형식의 회화부터 판화, 설치미술, 조각, 사진, 팝아트 성격의 미술까지 장르를 넘나들며 자신만의 독특한 궤적을 그려왔다.

이중섭미술상 심사위원회(심사위원장 정영목)는 형식을 초월해 소통해 온 점을 높이 평가해 그를 수상자로 결정했다. <2면에 계속>

발행인 **변용식** 편집인 **유광선** 기획·편집 **리윤커뮤니케이션** 발행처 **재단법인 방일영문화재단** 04519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21길 30** Tel **724-5041~2** Fax **724-5049** e-mail **biyf@chosun.com**

작가 윤동천이 회화 '자라나는 함성' (2023)을 배경으로 서 있다. 남도의 절터에서 만난 나무에 감정을 이입했다.
가로 5.2m, 세로 2m에 달하는 대작이다.

조선일보 홍준호 발행인이 제35회 이중섭미술상 수상자 윤동천 씨에게 상패를 수여하고 있다.

<1면에서 계속> 심사위는 "윤동천은 미술의 사회적 · 교육적 · 철학적 기능과 실천이 현재의 우리를 치유하고 변화할 수 있게 하는 원동력임을 굳게 믿는 작가"라 평하며 "일상의 하찮은 물질에 의미를 부여하는 마술사와 비슷한 작가"라고 했다.

윤 작가는 수상소감에서 위트 넘치게 "고2 때 강력히 미대 진학을 만류해 전투력에 기름을 붓게 만들어 주신 아버님께 고마움을 표한다"며 "그때 사내로서 모든 자존심을 걸었기에 그 이후 작가 이외의 다른 길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고 했다. 또 "한 우물을 파라고 지도해 주신 많은 은사님들께도 고마움을 전합니다. 그 말에 자극을 받고 역형성되어 이것저것 다루는 확실한 짬뽕이 되기 위해 애쓰며 살았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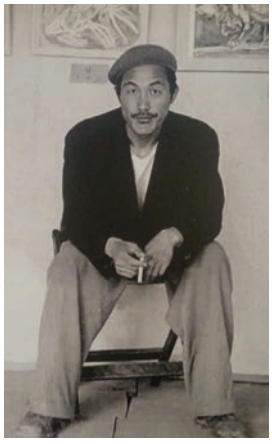
이날 시상식에는 역대 이중섭미술상 수상 작가 황용엽, 권순철, 정복수, 김호득, 정정엽 씨와 이중섭미술상 운영위원과 심사위원, 조선일보 홍준호 발행인과 재단 변용식 이사장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시상식과 함께 개막한 수상 기념전시회 '이면(裏面)'에서는 쓴웃음 짓게 하는 풍자와 해학을 느낄 수 있다. 회화와 설치, 디지털 프린트 등 신작 21점을 통해 우리가 마주한 현실을 날카롭게 비틀어 예술로 펼쳐 보였다.

이중섭미술상 수상자 윤동천 씨가 수상소감을 말하고 있다.

재단 목적사업에 '이중섭미술상' 지원사업 추가

상금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인상… 전시회, 세미나등 지원



재단은 지난 2월에 가진 정기이사회에서 정관 제4조(사업) 1항에 「이중섭미술상 시상 및 이에 부수되는 사업」 항목을 추가하기로 결의했다.

'이중섭미술상' 은 1988년 이중섭(1916~1956) 화백의 예술혼을 기리고 역량 있는 작가에게 시상함으로써 한국 미술발전에 기여하고자 제정된 상이다. 이 상은 구상-김광균 시인, 박고석-김영주-권옥연 화가 등 문화예술인이 뜻을 모아 출발되었으며, 기금 조성을 위해 이중섭 화가와 친교가 있었던 화가 24명이 참여했으며 그간 조선일보사가 운영을 맡아왔다.

우리 재단은 문화 발전을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국내 최고 권위의 '이중섭미술상' 을 재단의 목적사업으로 정하여 지원키로 한 것이다.

지원책으로는 오랫동안 인상이 없었던 시상금을 이번 35회 시상부터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인상하기로 했으며 수상자 전시회, 이중섭 화백을 기리는 세미나 등도 지원한다.

'이중섭과 서귀포' 세미나

제26회 '이중섭과 서귀포' 세미나가 9월 6일 서귀포 KAL호텔에서 열렸다. 한국 근현대 미술사의 대표 화가 이중섭의 기일(9월 6일)에 열리는 이 행사는 이중섭의 작품 세계와 정신을 기리고 한국 미술계에 화두를 던지는 역할을 해왔다.

이날 발표를 맡은 이중섭 연구자인 서지현 씨는 이중섭의 일본 유학 시절과 자유미술가협회 전시에 출품한 작품 목록, 부인 이남덕 여사와의 만남 등을 소개했다.

정대석 거문고 명인, 제30회 방일영국악상 수상

"전통을 잊지 않고 창작을 통해 국악의 매력을 알리는 노력을 계속 할 것"

수상자 정대석 명인이 제자들과 거문고 연주를 하고 있다.

우리 재단이 수여하는 제30회 방일영국악상이 올해는 정대석 거문고 명인에게 돌아갔다. 지난 11월 28일 서울 코리아나호텔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정 명인은 상패와 상금 8000만 원을 받았다. 1994년 '국악의 해'를 맞아 제정된 방일영국악상은 한평생 국악 전승과 보급에 힘쓴 명인·명창에게 수여하는 국내 최고 권위의 국악상으로 올해 30주년을 맞았다.

수상자 정 명인은 거문고 연주와 창작에서 독보적 위치에 올랐다는 평을 받아왔다. 50여년간 거문고 연주 발전과 국악 대중화 외길을 걸어왔다. 한때 거문고는 독주 악기로 주목받지 못했지만, 그는 '달무리' '무영탑' 등 창작곡 70여 곡을 발표하며 주변의 편견을 깨고 자신만의 길을 개척했다. 서울시립관현악단 수석, KBS국악관현악단 수석 및 악장을 거쳤고, 2007년에는 서울대 음대 첫 타과 출신 교수로 임용돼 국악계를 놀라게 했다.

정 명인은 1964~1970년 국립국악원 부설 국악사 양성소 시절 넉넉지 않은 가정 형편으로 다 부서진 고물 거문고로 배움을 시작했다. 그는 수상소감에서 "거문고는 제게 운명처럼 찾아왔다"고 했다. "어릴 적 엿장수 수레에서 300원짜리 거문고를 만나지 않았다면 제 인생은 거문고와 인연이 없었을 것"이라며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다. 이어 "앞으로 거문고를 통해 전통을 잊지 않고 창작을 통해 미래를 꿈꾸며 더 많은 사람에게 국악의 매력을 알리는 사람이 되고자 늘 노력하겠다"며 수상 소감을 마쳤다.

진행을 맡은 김성녀 전 국립창극단 예술감독은 "평생을 거문고의 길에 바친 정 선생님을 비롯해 국악 명인들을 울컥하게 하는 방일영국악상이 벌써 30년을 이어온 게 참 뜻깊다"고 했다.

윤미용 방일영국악상 심사위원장은 이날 심사 경과 보고에서 "정 명인은 전통악기인 거문고를 독주 악기와 창작 음악의 영역에서 이 시대의 악기로 되살렸고, 거문고 연구 모임인 '정대석제 거문고산조 보존회'를 통해 후진 양성에 힘썼다"고 말했다.

정종섭 한국국학진흥원장은 축사에서 "주역의 '지산겸괘(地山謙卦)'처럼 겸손하게 자기 길을 정진해 온

역대 방일영국악상 수상자, 심사위원, 변용식 재단 이사장이 자리했다.

변용식 재단 이사장이 방일영국악상 제30회 수상자 정대석 명인에게 상패를 수여하고 있다.

정대석 명인이 수상소감을 말하고 있다.

정 명인을 거문고 분야 '불세출의 거목'으로 평가하고 픈 건 저만의 생각이 아닐 것"이라고 했다. 서울대 법대 교수 출신인 정종섭 원장은 정 명인이 서울대 재직 시절에 동료 교수 100여 명에게 거문고를 가르치며 수년째 인연을 이어온 '지음회' 소속이다.

이날 정 명인은 수상식 현장에서 여섯 개의 명주실로 단정한 음을 뜯어 올리며 자신의 대표 3곡을 제자들과 함께 연주했다. 1988년 초연해 새 연주 기법으로 호평받은 '정대석제 거문고산조', 다채로운 음색이 돋보이는 협주곡 '수리재', 웅장한 고구려의 기상을 담은 거문고 2중주 '고구려의 여운'을 선보여 박수를 받았다.

이날 시상식에는 역대 수상자인 정재국(18회) 명인, 이재숙(24회), 김일구(28회) 명창과 그의 부인인 김영자 명창, 조순자(29회) 명창, 심사위원인 김영재 무형문화재 거문고산조 보유자, 김영운 국립국악원장, 유영대 고려대 명예교수가 참석했다. 내빈으로 이종식 전 국회의원, 안병훈 도서출판 기파랑 대표, 조연흥 전 방일영문화재단 이사장, 한명희 이미시문화서원 좌장, 강사준 서울대 국악과 명예교수, 김해숙 전 국립국악원장, 김중채 임방울국악진흥회 이사장, 황준연 서울대 국악과 명예교수, 윤영달 크라운 해태 회장, 김성진 전 국립국악관현악단 지휘자, 하주화 서울예대 명예교수, 김우진 대한민국예술원 회원, 이상룡 종묘제례악 보유자, 라제건 각당복지재단 이사장, 민의식 한예종 명예교수 등도 자리를 함께했다.

변용식 재단 이사장,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 홍준호 조선일보 발행인, 방준오 조선일보 부사장, 주용중 TV조선 대표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2023년 '올해의 스승상' 수상자들. 왼쪽부터 김동민(인천백석초) · 박훈(의정부부용초) · 박순덕(원종초) · 강미숙(사동중) · 김용곤(남지고) · 이순희(장호근 충주상고 교사 대리 수상) · 강미애(서울맹학교) 교사.

"학생 비추는 등대로… '난사람' 보다 '된 사람' 키우겠다"

2023년 '올해의 스승상' 7명의 교사 시상

올해의 스승상

우리 재단과 교육부, 조선일보사가 공동 제정해 운영하는 '올해의 스승상' 시상식이 12월 20일 조선일보사 편집동 '조이' 세미나실에서 열렸다.

'올해의 스승상' 은 사회에 귀감이 되는 스승을 발굴해 그 공로를 알리려는 목적으로 2002년 제정되었으며 기관 추천(학교장 추천)이나 국민 추천(동료 교사, 학부모, 동창회 등 10인 이상 추천)등을 받아 심사를 거쳐 수상자를 선정한다. 올해의 수상자 7명을 포함해 지금까지 247명의 선생님이 이 상을 받았다. 수상자에게는 교육부 장관 표창장과 상금 2000만 원이 주어진다.

영예의 수상자는 김동민(인천 백석초등학교), 박훈(의정부 부용초등학교), 박순덕(경기 원종초등학교), 강미숙(경북 사동중학교), 김용곤(경남 남지고등학교), 장호근(충북 충주상업고등학교), 강미애(서울맹학교) 교사 등 7명이었다.

초등학생을 위한 '놀이교육' 을 연구하고 확산시킨 김동민 교사는 "한 명의 선생님은 1000명의 아이를 품은 씨앗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더욱 열심히 교사 연수 활동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초등 천체관측교육과 과학 수업을 발전시킨 박훈 교사는 "상이 주는 무게를 견디며 앞으로 더욱 멋진 스승이 되겠다"고 했다. 다양한 인성 수업을 개발한 강미숙 교사는 "제 교육 목표는 '난사람' 보다 '된 사람' 을 기르는 것"이라고 했다. 시각장애 영유아 교육과정을 개발한 강미애 교사는 "이 상을 받는 것이 '그동안 교직 생활을 잘해왔다' 고 증명해주는 것 같다"고 수상 소감을 말했다.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은 인사말에서 "선생님들의 지도 덕분에 학생들은 세상을 이해하고, 자신의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며 "선생님들의 가르침은 학생들의 인생에 있어 가장 소중한 자산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3 올해의 스승상' 수상자 공적

인천백석초등학교 김동민 교사

*수업자격 11종, 수업나눔 150회, 교사공부 10년, 교육블로그 10년 운영

*놀이영상 30편, 수업자료 5종, 교육실습 10종을 개발하며 교수학습방법 혁신에 기여함

의정부부용초등학교 박훈 교사

*다년간 교육과정 편성, 운영에 대해 연구하고 그 결과물과 경험을 타 교사, 학교와 공유하는 등 교육 발전에 크게 공헌함

*초등 천문연구회, 아마추어 천체학회 등 천문과학분야 연구 활동, 과학초등 교육자료 연구, 집필 활동 등을 통해 교육 현장 발전에 크게 공헌함

원종초등학교 박순덕 교사

*질문이 있는 큐앤알(Q&R) 학습 방법 개발로 교실 수업 개선에 기여함

*수업 공개(100회 이상), 수업 컨설팅(500시간 이상), 신규교사 멘토링, 교사공동체, 각종 연구회 운영을 통해 교수, 학습자료 보급 및 공유 등으로 교수, 학습 방법 혁신에 기여함

*다문화 교육 전공 박사 1호로 한국 다문화 교육 발전에 기여함

사동중학교 강미숙 교사

*교육과정 재구성을 통한 실천 중심의 인성 수업으로 바른 품성을 겸비한 미래 인재 양성

*학생이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교수학습 자료 개발, 진로 및 생활지도 적극 추진

*교실 수업 개선, 수업 컨설팅 및 교육 연구 활동으로 교원 전문성 신장 선도

남지고등학교 김용곤 교사

*꿈키움교실 운영을 통한 인성 교육과 기초학력 신장

*진로동아리 운영을 통한 진로 교육

*민주학교, 정책학교 담당을 통한 민주시민 의식 함양

*다문화 정책학교 담당을 통한 세계시민 의식 함양

충주상업고등학교 장호근 교사

*고교학점제 및 학과 재구조화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여 우수사례 컨설턴트로 활동

*NCS 회계실무 수업 자료 제작 및 수업 연구회 연결

*에듀테크를 기반한 직업 계고 프로젝트 수업 활성화

서울맹학교 강미애 교사

*우리나라 최초 시각장애 영아 학급 운영을 통해 조기 발견 및 중재를 위한 교육과정, 교육방법, 교육내용, 교육매체를 활용하여 시각장애 영아 조기교육에 선도적 역할 수행

*시각장애 유아의 특성과 요구에 맞는 교재교구 개발을 통해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격려사에서 "교육부는 교권 확립을 바탕으로 선생님들께서 교육개혁의 주체로서 본연의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여 지원하겠다"면서 "오늘 수상하신 선생님들의 빛나는 경험과 노하우가 학교 현장을 변화시키고 수업 혁신을 일으키는 소중한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널리 공유해 주시기 바란다"며 당부했다.

이날 시상식에는 '올해의 스승상' 심사위원장인 김도연 서울대 명예교수를 비롯해 변용식 재단 이사장, 홍준호 조선일보 발행인, 올해의 수상자 모임인 '한올회' 회원, 수상 교사들 가족, 동료 교사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방준오, 김영달 이사 선임

방준오 이사

재단은 2월 9일 정기이사회를 열고 방준오, 김영달 두 분의 이사를 새로 선임했다.

방준오 이사는 미국 콜드웰컬리지 경영학과를 졸업한 후 2003년 조선일보에 입사하여 워싱턴 특파원, 국제부 기자, 경영기획실 이사대우 등을 지냈으며, 현재 조선일보사 부사장 및 조선비즈 대표를 맡고 있다.

김영달 이사

김영달 이사는 1998년 카이스트 전산학 박사과정 중 세계 첫 CCTV용 디지털 녹화 장치를 개발한 영상보안 기술 관련 AI 전문가로, 지주사인 아이디스홀딩스 산하에 코스닥 상장사 4개사를 포함해 16개 계열사를 두고 있다.

안병훈 전 재단 이사장 협성사회공헌상 수상

우리 재단 이사장을 지낸 안병훈 도서출판 기파랑 대표가 이승만 전 대통령의 생애와 업적을 알리고 좌편향된 우리 근현대사를 바로 세워온 공로로 11월 24일 협성문화재단이 수여하는 '협성사회공헌상'을 받았다.

안병훈 전 재단 이사장(왼쪽)

신영희 명창 70주년 기념공연

방일영국악상 제26회 수상자인 신영희 명창의 '신영희 소리인생 70주년' 기념공연이 12월 3일 국립국악원 예악당에서 성황리에 펼쳐졌다. 신 명창의 판소리 70년 세월을 되돌아보는 이번 공연에는 국악계 후배들이 대거 참여하여 판소리, 창극 등 다양한 국악 장르를 선보였다.

방일영 선생 20주기 추모식

1등 신문을 키워낸 '우초의 헌신' 기려

우리 재단 설립자인 고(故) 우초(愚礎) 방일영(1923~2003) 선생의 20주기 추도식이 8월 8일 오전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선영에서 열렸다.

우초 선생은 1950년 7월 조부인 계초 방응모 전 사장이 납북되자 같은 해 10월 취체역에 선임되어 전쟁으로 제작이 중단됐던 조선일보를 속간하는 등 민족언론의 명맥을 유지하는 데 헌신했다.

조선일보 사장과 회장, 고문 등으로 56년간을 재직하며 조선일보를 최고의 신문으로 키워냈다.

추모식에는 고인의 아들인 방상훈 조선일보사 사장과 손자 방준오 조선일보사 부사장, 방정오 TV조선 전무가 참석했다. 또 손자 방성오 코리아나호텔 대표, 조카 방성훈 스포츠조선 대표를 비롯해 윤세영 SBS미디어그룹 창업 회장과 최태원 SK 회장 등 가족과 친지, 정재계·문화계 인사, 조선일보사 전·현직 사우 150여 명이 참석했다.

우초 선생은 권력에 휘둘리지 않는 언론자유 창달에 전념했다. 5·16 직후인 1963년 3월에는 12일 동안 사설을 게재하지 않는 것으로 군정에 반대 의사를 표명했고, 1964년 8월에는 언론윤리위원회법에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 선생은 1974년 방일영장학회를 설립해 후학 양성에 힘썼고, 1993년 방일영문화재단을 발족하고 방일영국악상을 제정하는 등 문화 발전에도 크게 기여하였다.

김대중 전 조선일보 주필은 추모사에서 "우초 방일영은 '신문을 만드는 사람을 만든' 언론인으로 꼽힌다. 자신이 방패막이가 되는 한이 있더라도 글 쓰는 기자들만은 권력에 휘둘리지 않기를 바랐다"고 했다.

추모식은 김서년 벧엘교회 원로 목사의 집례로 예배 형식으로 약 20분간 진행했다. 김 목사는 "우초는 '옳은 데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는 성경 구절을 생각나게 한다"면서 "그를 추모하는 이 자리에 모인 우리에게 공의(公義)의 길을 이어 나가는 귀한 사명이 있다"고 말했다.

설레고 행복했던 평창에서의 기억

방일영장학회 1박2일 여름 수련회

3년 만의 여름 수련회

6월 23일과 24일 1박 2일 동안 강원도 평창 휘닉스 파크에서 방일영장학생들은 여름 수련회를 가졌다. 2023학년도 1학기 수업을 마친 직후에 열린 여름 수련회이자 코로나로 3년 만에 열린 수련회인 만큼 여러 장학생들이 들뜬 마음으로 참여하였다. 특히 한 학기 동안 시험 공부를 하면서 하루하루 도서관 혹은 독서실에 갇혀 열심히 공부하느라 받았던 스트레스를 푸는 기회가 되었다. 비가 그친 다음 날이라 선선했던 초여름 날씨에 장학생들은 루지와 곤돌라를 타고 맛있는 음식도 먹으며 볼링과 노래방도 즐기면서 서로 더더욱 친해지는 시간이 되었다. 다음 날 워터파크를 즐기며 이번 여름을 시원하게 시작하기도 했다. 이번 여름 수련회는 코로나로 잠시 멈추었던 장학회의 활동에 다시 활기를 가져온 특별한 수련회였다.

설렘반, 긴장반, 평창으로 떠나는 길

시험과 과제로 가득 찼던 1학기를 마무리하고 종강이 얼마 지나지 않은 6월의 마지막 주에 장학생들은

방일영 장학회 수련회에 참가하게 되었다. 6월 23일 오전 10시에 장학생들은 재단사무국에 모인 뒤 단체버스를 타고 평창 휘닉스파크로 출발했다. 평창에 도착한 뒤 맛있는 메밀 막국수와 감자만두를 점심으로 먹었다. 휘닉스파크에 도착하여 숙소를 배정받은 후 장학생들은 모두 루지를 타러 이동했다. 전날 비가 온 뒤여서 그런지 리프트를 타고 올라가며 봤던 하늘은 매우 맑았고 흰 구름들이 우아하게 떠있었다. 루지에 올라 안전교육을 받은 뒤 빠른 속도로 핸들을 꺾으며 내려오다 보니 금세 출발지점에 도착하게 되었다. 또 타고 싶은 사람은 한 번 더 타도 된다는 사무국장님의 말씀에 한 명도 빠짐없이 모두가 리프트로 향했고 재미난 순간을 한번 더 즐길 수 있었다. 이후 곤돌라를 타고 정상에 올라가보았다. 정상은 생각보다 더 높았고, 날씨가 너무 좋아서 산과 구름으로 뒤덮인 경치를 바라보니 마치 알프스 산맥에 와있는 것 같았다. 다들 경치를 구경하며 사진으로 남기느라 바빴고, 다같이 단체사진을 찍은 뒤 다시 곤돌라를 타고 내려왔다.

재밌는 활동으로 더더욱 친해진 시간들

저녁시간이 되어 배가 고파질 즈음 휘닉스파크 호텔 식당으로 이동하여 뷔페를 즐겼다. 육류부터 해산물, 샐러드, 디저트까지 다양한 메뉴들의 맛있는 음식들이 준비되어 있었고, 모두들 본인이 좋아하는 음식들을 한 접시 가득 담아와서 즐겁게 이야기를 나누며 풍성한 저녁식사 시간을 보냈다. 식사를 마친 뒤 휘닉스파크 내 센터플라자로 이동하여 볼링과 노래방을 즐겼다. 팀을 나눠 볼링 점수내기를 하면서 스트라이크를 칠 때마다 다같이 하이파이브를 해주며 환호했고 서로를 격려해주며 더욱 끈끈해지는 친밀감을 느꼈다. 이후 밤시간이 되자 모두 방으로 이동해서 간단히 술을 마시면서 못다한 이야기도 나누고 함께 게임을 하면서 웃고 떠들다 보니 다음 날 아침이 찾아왔다. 조식 뷔페를 먹고 물놀이장인 휘닉스파크 블루캐니언으로 향했다. 여름의 시작에 마주하여 매우 반가웠던 워터파크에서 유수풀과 파도풀, 그리고 슬라이드까지 즐기다 보니 시간은 무척이나 빠르게 지나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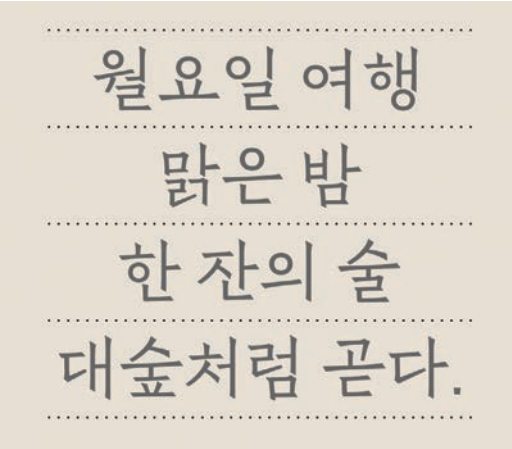
이틀간의 수련회를 마무리하며

워터파크에서 나온 장학생들은 이틀간의 일정을 마무리하고 버스에 탑승했다. 오는 길에 휴게소에 들러서 다들 한우국밥을 먹은 뒤 서울로 향했다. 물놀이를 너무 열심히 해서인지 돌아오는 버스안은 매우 조용했다. 그렇지만 다들 출발할 때와는 사뭇 다른 감정이었을 것이다. 이는 한 달에 한 번 월례회에서 마주치며 얼굴만 아는 정도의 사이에서, 이틀간의 수련회를 통해 서로 마음을 나누는 소중한 인연을 많이 만들었기 때문이다. 또한 이러한 기회를 만들어 주신 방일영 장학회에 대한 감사의 마음 또한 가슴 깊이 자리하고 있었을 것이다. 그렇기에 다들 앞으로 큰사람이 되어서 사회에 환원하는 그날까지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되새기는 시간이 되었을 것이다. 길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친해질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으며, 추억을 많이 남긴 값진 시간이었다.

정리 **황현태**〈고려대 통계학과 2년 · 장학회 50기〉

제8회 한글글꼴창작지원 위예진 디자이너 선정

한글 목판본을 재해석한 '죽순' 체



우리 재단이 후원하고 (사)한국타이포그라피학회가 주관하는 한글글꼴창작지원 사업의 제8회 수혜자로 위예진 디자이너가 선정되었다.

한글글꼴창작지원 사업은 한글 본문용 글꼴 개발에 남다른 열정과 의지를 가진 타입 디자이너를 발굴하여 지원함으로써 아름다운 한글의 우수성을 알리고 한글 글꼴의 창작과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다.

(사)한국타이포그라피학회(회장 최슬기)는 지난 6월 23일 서면 심사와 7월 28일 비대면 블라인드 심사를 통해 12명의 지원작 중 위예진 디자이너의 '죽순' 체를 최종 선정하여 8월 11일 학회의 SNS 계정을 통해 발표했다.

창작 지원금 2000만 원을 받게 되는 위예진 디자이너는 현재 영국에서 타입 디자이너로 활동 중으로 산돌의 리테일 폰트뿐만 아니라 여러 기업의 전용서체 개발에 참여해 왔다.

이번에 선정된 '죽순' 체는 대나무 숲처럼 곧고 힘찬 인상이 특징이다. 곧고 힘찬 행필부, 날카롭고 비스듬한 기필부와 수필부를 통해 곧고 힘찬 인상을 드러냈고, 글자 상단의 기울기, 조밀하고 견고한 공간을 통해 기존의 본문용 글자체와는 차별화된 독창적인 글자체를 디자인하였다.

'죽순' 체는 상용화를 위한 보완 작업 등을 거쳐 2025년 8월에 완성된 글꼴 발표회를 가질 예정이다.

제7회 한글글꼴창작 작품 발표회

지원금 수혜자 이주은 씨의 서체 '범나비' 체

제7회 한글글꼴창작 지원금 수혜자인 이주은 씨의 작품 '범나비' 체 발표회가 8월 3일 서울 마포구 복합문화공간인 WRM space에서 전시를 겸해 열렸다.

'범나비' 체는 한글의 전통적인 반흘림궁체의 질감을 모티브로 타입 세팅 시 안정적인 판독성과 신선한 텍스처를 가지고 현대적인 미감과 조형을 갖춘 서체이다.

제31회 임방울국악제 방일영상 김다정 씨

"오늘은 2등이지만 내일부터 1등을 향해 가렵니다"

대통령상 박자희 씨

방일영상 김다정 씨

우리 재단이 협찬하는 제31회 임방울국악제 결선이 9월 18일 광주광역시 빛고을시민문화회관에서 열려 판소리 명창부 대상(대통령상)에 박자희 씨가, 우리 재단이 수여하는 최우수상(방일영상)에는 김다정 씨가 받았다.

방일영상을 수상한 김다정 씨는 '아리랑' 의 고장 전남 진도 출생으로 북, 사물놀이 등 타악을 전공하다 본격적인 소리 공부는 남들보다 늦은 '고2' 때였다.

수상소감에서 "올해는 명창부에서 예년보다도 많은 예선 참가자가 몰린 걸 보고 수상은 반 포기 상태였는데 뜻밖의 성과에 정말 기뻤다"며 "오늘은 2등을 했지만 더 열심히 하란 뜻으로 또다시 이 대회 1등을 향해 달려가려고 합니다. 당장 내년부터요"라고 말했다.

재단 신임 사원 한자연 씨

한자연 씨

재단 사무국 신임 사원으로 한자연 씨가 채용되어 지난 5월부터 근무 중이다.

한자연 씨는 조선일보 계열사인 '조선영상비전' 에서 회계 업무를 한 경력이 있다. 전임자 송경의 대리는 육아 등 개인 사정으로 퇴사했다.

제40회 최은희여기자상 시상식

중앙일보 이정민 칼럼니스트 수상

우리 재단이 상금을 후원하는 제40회 최은희여기자상 시상식이 9월 13일 서울 코리아나호텔에서 열렸다. 올해의 수상자로 중앙일보 이정민 칼럼니스트가 선정돼 상패와 상금 2000만 원을 받았다.

이정민 수상자는 수상소감에서 추계 최은희 선생의 기자정신을 강조하며 "초심으로 돌아가겠다. 발길을 멈출 사이 없이 자꾸 돌아다니면서 진실을 찾으려는 끈질긴 노력으로 언론이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시상식에는 역대 수상자와 심사위원, 수상자가 취재 현장에서 오래도록 인연을 맺은 각계 지인 등 140여 명이 참석했다.

수상자 이정민 칼럼니스트가 수상소감을 말하고 있다.

최은희여기자상 상금 2천만 원으로 인상

재단은 지난 2월에 열린 정기이사회에서 최은희여기자상 상금을 올해부터 1천5백만 원에서 5백만 원을 증액해 2천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의했다.

제51기 방일영장학생 15명 선발

재단은 11월 10일 제51기 방일영장학생 15명을 선발해 발표했다.
선발된 장학생에게는 과도한 성적 하락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학년 1학기부터 4학년 2학기 졸업 때까지 등록금 전액과 매월 70만 원의 생활 보조장학금이 지급된다.
각 대학의 추천을 받아 서류심사와 면접을 거쳐 선발된 제51기 장학생들은 아래와 같다.

강성은
(연세대 경영학과)

김민서
(서울대 인문계열)

김민아
(서울대 독어독문학과)

김성유
(연세대 사회복지학과)

김성훈
(서울대 경영학과)

김준이
(서울대 경영학과)

박현민
(서울대 심리학과)

서가은
(연세대 경영학과)

성이수
(고려대 경제학과)

송예은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안도휘
(고려대 행정학과)

양지웅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윤수민
(서울대 자유전공학부)

정성욱
(서울대 자유전공학부)

조민지
(서울대 인류학과)

방일영장학회 장학증서 · 졸업기념패 수여식

25명 신입 장학생에 장학증서, 15명 졸업 장학생에 졸업기념패 수여

방일영장학회 2023년도 신규 장학생에 대한 장학증서 수여식과 졸업생에 대한 졸업기념패 수여식이 지난 2월 24일 조선일보 임원 및 간부, 장학회 선배들이 참석한 가운데 조선일보사 접견실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제50기 학부장학생 16명과 제13기 탈북장학생 9명, 졸업장학생 15명 등이 참석해 장학증서와 졸업기념패를 받았다.

변용식 재단 이사장은 격려사에서 신입 장학생들에게 "여러분들은 아주 좋은 커뮤니티에 들어왔음을 환영한다"며 "앞으로 장학회가 운용하는 각종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꿈과 희망을 키워가기 바란다"고 말했다.

졸업 장학생들에게는 "그동안 공부 열심히 하느라 수고가 많았다"며 "여러분이 갈고 닦은 실력은 앞으로 사회에 나가서 세상을 살아가는데 단단한 밑바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방일영 선생은 평소 장학생들에게 "장학금은 나무에 밑거름을 주는 것이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것은 장학생 여러분의 몫"이라는 말을 자주 하셨다면서 "여러분들 모두 귀담아 들으시고 인생 설계를 잘 하시기 바란다"며 격려했다.

수여식을 마친 뒤 회식 장소로 자리를 옮겨 장학회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신입회원 환영회와 졸업생 환송회가 흥겹게 이어졌다.

UN 안보리서… "북한 독재, 영원할 수 없어"

탈북 방일영장학생 출신 김일혁 씨 유엔 안보리 연설

우리 재단 제6기 탈북장학생 출신인 김일혁 씨(2021년 한국외대 졸업)가 지난 8월 17일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논의하는 안전보장이사회에 시민대표 자격으로 참석했다. 안보리가 북한 인권 문제로 회의를 소집한 것은 6년 만이다.

김일혁 씨는 이날 영어로 "북한 주민에게는 인권도, 표현의 자유도, 법치주의도 없다"며 "정권에 반대하는 사람은 정치범 수용소에 끌려가 죽을 때까지 노역에 시달린다"고 했다. 또 "북한이 미사일 단 한 발에 사용하는 돈이 우리를 석 달간 먹일 수 있다. 하지만 북한 정권은 권력 유지와 핵무기 개발을 정당화하기 위한 선전에만 관심이 있다"고 했다.

영어 연설 말미에 한국어로 "독재는 영원할 수 없다. 더 이상 죄를 짓지 말고 이제라도 인간다운 행동을 하기 바란다"고 했다.

회의를 마친 뒤 조선일보 뉴욕특파원과 만난 김일혁 씨는 "북한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게 부담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당연히 부담됐다"면서 "탈북한 제 가족 때문에 죄 없는 고모가 정치범 교화소에 끌려갔어요, 교화소에 가면 살아 나오지 못해요. 고모와 어린 사촌들에게 너무 미안한 마음 때문에 가슴에 남은 응어리가 나를 회의장으로 이끌었습니다."

뉴욕 유엔본부에서 북한 인권을 주제로 열린 안보리 회의에서 김일혁(오른쪽)씨가 발언하고 있는 모습을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보고 있다.

많은 탈북 청소년들처럼 그 역시 한국 사회에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탈북민에 대한 편견으로 마음에 상처를 받은 적도 있었다. 대학에 진학한 뒤 '통일리더십동아리 NK(NorthKoera)' 라는 모임을 이끌면서 대학생들끼리의 교류와 봉사활동에 앞장섰다.

이런 활동을 통해 자연스럽게 북한 주민들의 인권 문제 해결에 관심을 갖게 됐다.

그는 "향후 미국에서 국제 협력 개방 등 국제 관계에 대한 공부를 이어 가고 싶다"고 했다.

제14기 탈북장학생 9명 선발

재단은 12월 5일 제14기 탈북장학생 9명을 방일영장학생으로 선발했다. 이번에 선발된 장학생은 경희대 · 국민대 · 서강대 · 서울대 · 숭실대 · 연세대 · 중앙대 · 한국외대 · 홍익대 등 각 1명이다. 이로써 2010년 선발을 시작한 이래 탈북장학생은 모두 133명으로 늘었다. 이들은 각 대학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서류심사와 면접을 통해 선발되었으며, 과도한 성적 하락 등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2학년 1학기부터 졸업 때까지 매월 70만 원의 생활 보조장학금을 지급받는다.

2023년도 언론인 저술지원자 29명 선정

상반기 15명, 하반기 14명

【 2023년 상반기 저술지원 대상자 】

김문경
(YTN 통일외교안보부장)

김태훈
(SBS 국방전문기자)

김해창
(경성대 환경공학과 교수)

김혁조
(강원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김호성
(전 YTN 사장대행)

박수유
(채널A 외교안보국제부 기자)

송상근
(이화여대 저널리즘교육원 특임교수)

송진원
(조선뉴스프레스 톱클래스 차장)

신창운
(인하대 통계학과 초빙교수)

신하림
(강원일보 사회부 차장)

안영배
(동아일보 콘텐츠기획본부 부국장)

조준원
(언론중재위원회 사무총장)

최정호
(울산대 석좌교수)

황대일
(연합뉴스 선임기자)

황성혜
(한국존슨앤드존슨 부사장)

재단은 전 · 현직 언론인과 언론학자가 대상인 2023년도 저술지원 대상자를 상반기에 15명, 하반기에 14명을 선정해 발표했다. 이들에게는 각 700만 원의 저술지원금이 지급되며 1년 이내에 출간해야 한다.

【 2023년 하반기 저술지원 대상자 】

고규대
(이데일리 디지털미디어 센터장)

김선미
(동아일보 콘텐츠기획본부 부장)

김성진
(연합뉴스 북한콘텐츠팀장)

김형국
(가나문화재단 이사장)

노석조
(조선일보 정치부 기자)

박종문
(영남일보 편집국 부국장)

박한우
(영남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박현갑
(서울신문 논설위원)

양영채
(우리글진흥원 사무총장)

윤홍근
(전 CBS 심의평가부장)

이재진
(한양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임정식
(로컬데일리 발행인)

채민기
(조선일보 문화부 기자)

허의도
(인터넷신문위원회 전문위원)

서중회원 동정

- **1기 서기석** KBS 이사회 이사장으로 선임
- **3기 황윤덕** 사단법인 양지회 부회장으로 선임
- **3기 마영삼**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원 연구위원으로 이동
- **7기 손기호** 법무법인 로펌한영 고문변호사로 이동
- **7기 윤태용** 한남대학교 교수/대전국제개발협력센터 원장
- **14기 김도영** NPX프라이빗에퀴티에서 김앤장 법률사무소로 복귀
- **16기 강민성** 강민성 법률사무소(수원) 개업
- **16기 김영중** 한국고용정보원 원장 취임
- **17기 이형일** 기재부 차관보에서 통계청장 취임
- **17기 김형준** ㈜더카이노스 이사
- **18기 이상혁** EV DREAM(천안) 대표이사
- **23기 한명진** 한국수자원공사 보상기획차장
- **24기 박종하**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인사전략실 부장
- **25기 유승렬** 삼성화재 일반채널영업팀 부장
- **27기 곽상호** 대전고등법원 판사로 이동
- **28기 송영복** 서울고등법원 고법판사로 이동
- **28기 함중규** 그레이스메리지컨설팅 상담총괄팀장
- **32기 김애영** KBS 지식재산권부 변호사
- **33기 양승욱** 중소벤처기업부 과장(일리노이대 경제학 석사과정 중)
- **35기 은지현** Assistant Professor/Salisbury University
- **36기 이승수** Assistant Professor/City University of Hong Kong
- **37기 김관욱** 군 법무관 전역 후 법무법인 율촌 입사
- **38기 김성배** 새마을금고중앙회 부동산금융부 과장
- **39기 백대열** 김앤장 법률사무소로 이동
- **39기 권영서** 한국거래소 주식시장부로 이동
- **39기 김정민** Assistant Professor/Northwestern University
- **43기 김일리** 서울대 로스쿨 졸업 후 대전지방법원 재판연구원
- **43기 김채영** 법무법인 바른으로 이동
- **43기 김영관** 조선일보 기자직 입사
- **44기 이루다** 서울대 로스쿨 졸업 후 의정부지검 근무

2024년 졸업 방일영장학생들 진로

- **44기 허가영** 대학원 진학
- **45기 이수경** 기획재정부 재경직 근무
- **45기 이승준** 서울대 로스쿨 진학
- **45기 박상윤** SK주식회사 C&C 입사
- **46기 강민재** 고려대 대학원 컴퓨터학과 진학
- **46기 정지현** 미국 로스쿨 준비 중
- **46기 김현진** 대학원 진학
- **47기 최선우** 서울대 로스쿨 진학
- **47기 원서영** 고려대 로스쿨 진학
- **47기 백시원** 영국 법학사 단기과정 진학
- **48기 임유진** 중앙대 로스쿨 진학

장학회 47기 류동호 양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합격

장학회 47기 류동호 양(서울대 동양사학과 3학년)이 2023년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에 합격했다. 류 양은 졸업 전 국립외교원 수료 후 2025년 두 학기를 마치고 졸업한다.

서중회비 납부안내

서중회비 납부 바랍니다

서중회원 여러분, 2024년도 연간회비를 납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대상은 서중회원 중 졸업 후 5년차 이상 되시는 분입니다.
- ♣ 회비는 연간 10만 원입니다.
- ♣ 보내실 통장은 신한은행 110-362-284657로 예금주는 총무인 '김영철' 입니다.
  송금 시 성함과 기수를 함께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 회원 경조사 시 30만 원이 지급되오니 총무 김영철(010-3503-9214)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4월*

북극성의 빛을 따라 나만의 궤적을 그린다

말씀해 주신 분 **봉달호** <에세이스트>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살아가는 인생. 우리는 손바닥 위에 '삶'을 올려놓을 수 있을까? 모든 것이 계획대로 흘러가는 경우는 0에 수렴할 것이다. 새로운 변수에 이끌리고, 어쩌다 도착한 곳이 곧 나의 미래가 된다. '어쩌다'의 연속들이 삶에 재미를 더하고, 꿈을 만들어냈다는 봉달호 에세이스트의 이야기를 따라가 보았다.

편의점 셔터를 올리며

전국에 편의점은 몇 개일까? 우리가 흔히 들어본 편의점과 소규모 점포들을 합치면 6만여 개로 추측된다. 편의점을 운영하는 점주들은 3만 명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같은 업종이더라도 사람들은 제각기 다른 사연을 가지고 있다. 어떤 이는 대기업을 뒤로하고 손님을 맞이하고 있으며, 편의점을 잠깐 맡는 정도에서 어느새 진심을 쏟게 된 사람도 있다. 봉달호 작가님은 편의점 점주로서 셔터를 올리고, 에세이스트로서 하루의 장사를 '펜'으로 마무리한다고 말씀하셨다. 영수증 뒷면, 상자 귀퉁이가 집필 노트가 되고, 가게는 하루의 의미를 되새기게 하는 동력인 것이다. 불을 밝힌 편의점에서 사람들은 하루를 버티고 지켜나가고 있었다.

편의점에서의 관계는 폭이 넓지만 깊이는 얕다. 말 그대로 사람의 '편의'를 위해 물건이 배치되어 있고, 쉽게 물건을 살 수 있도록 구조화된 공간이기 때문이다. 관계의 끈은 얇을지라도 하루에 300에서 400명이 같은 문을 오가며 흔적을 남긴다. 여러 번 방문하는 손님들의 흔적은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기도 한다. 자영업

자에게도 가게란 단순히 돈을 버는 장소가 아니다. 한 가족의 웃음과 눈물, 일상이 담겨있다. 이렇듯 편의점은 사람들의 일생과 희로애락이 교차하는 정류장일지도 모른다.

인생의 목차를 써 내려가며

사람의 인생을 필름으로 풀어냈을 때 편집점이 존재한다. 모든 시간이 확정적이지는 않지만 인생의 전환점이나 공통요소가 있기 때문이다. 봉달호 작가님은 자신을 표현할 목차로 '가게'를 꼽았다. 식당을 운영하셨던 부모님을 옆에서 봐왔던 어린 시절부터 NGO에서 북한 인권 취재를 하다 중국에 정착해 식당, 미용실을 차렸던 과거, 아버지의 편의점 운영을 도와주려던 것으로부터 비롯된 현재까지. 그를 키웠던 것은 가게였다. 여전히 가게는 일상의 중심이며 글의 원천이다. 그러한 운명 속에 펜을 놓지 않은 작가님의 이야기는 '우리를 정의 내릴 수 있는 목차는 무엇일까?' 라는 질문을 던지게 한다.

우연과 북극성 사이

'9시 40분' 은 편의점 점주에게 중요한 시간이다. 다음 날의 물건을 발주하기 위해 지켜야 할 한계선이기 때문이다. 봉달호 작가님은 자신이 머무는 편의점 원리를 글에도 적용했다고 말씀하셨다. 모퉁이에 쓴 글을 세상에 보내기 전, 목표의 상한치를 정정한 것이다. 글 자체를 배움의 과정으로 여기고, 나름의 길잡이를 세웠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북극성' 과 같으며, 작가님이 꾸준하게 글을 쓸 수 있는 이유가 되었다.

우리에게도 때론 비과학적이고 논리적이지 않은 순간들이 찾아온다. 항로를 벗어나 맞닥뜨린 '우연' 을 사랑해보는 건 어떨까. '나' 에게 던져진 우연의 무게에 주저앉기보다 우연을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내일을 위한 발판으로 삼아야 한다. 북극성의 빛을 따라 걷는 길은 곧 자신만의 궤적이 될 것이다.

이번 강연은 학생들이 저마다의 셔터를 올릴 수 있는 원동력을 고민하는 계기가 되었다. 인생을 관통하는 목차를 세워가는 과정은 스스로에 대한 기대를 품게 한다. 우연과 운명의 교차점에서 '사람' 과 '살아감' 에 대한 답을 찾아간다면 미래를 향한 갈피와 용기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정리 **박지수**<연세대 정치외교학과 2학년 · 장학회 50기>

5월*

대학생에게 힘이 되어주는 한마디

말씀해 주신 분 **정호승** 〈시인〉

세상에는 변하지 않는 진리들이 있다. 이런 진리들은 너무나 당연시 여겨지는 탓에 때로는 그 중요성이 잊혀지곤 한다. 우리에게 그 중요성과 의미를 다시금 상기시키기 위해 현존하는 우리나라 최고의 시인 중 한 분인 정호승 시인께서 오늘 강연에 자리하셨다. 정 시인의 대학생 시절에는 주변 어른들께서 인색해서 이런 이야기를 아무도 해주지 않으셨다. 청춘의 꽃봉오리에 있는 우리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직접 해주고 싶어 이 자리에 서게 되었다고 하셨다. 그리고 우리가 진리들을 하루 지나 잊는 것이 아니라 가슴속에 깊이 묻고 살아갈 수 있도록 진리에 담긴 흥미로운 이야기를 해주셨다. 시인께서는 문장 하나를 이야기하고 그 문장에 담긴 이야기를 늘어놓는 식으로 강연을 진행하셨다.

진리 하나.
인생은 자기가 생각한대로 된다.

우리는 10년 뒤에 무엇이 되어 있을까를 지금 항상 생각하며 살아가야 한다. 시인님의 고등학교 시절, 친형께서는 정호승 시인께 물었다. 넌 커서 무엇이 될 거냐고. 답을 하지 못하였던 시인은 형께 되물었고, 형은 프로이트와 같은 정신과 의사가 될 거라 단언했다. 현재 형은 미국에서 정신과 의사로서 아직까지도 현역에 자리하고 계시다.

이런 예시는 비단 형 뿐만이 아니라 시인의 주변 사람들에게서도 찾아볼 수 있었다. 마흔이 넘은 지금, 자신의 목표를 가지고 있던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분명 다른 삶을 살고 계시다고 시인께선 힘주어 말하셨다. 시인 자신도, 현재 최고의 시인이 된 것은 순전히 그러한 목표를 어릴 때부터 지니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셨다. 대학에 입학하겠다는 목표로 문예 장학생이 되고, 기성 문인이 되겠다는 일념으로 신춘문예에 당선되었다. 결국 자신이 세운 목표를 따라가는 삶의 연속이었다. 즉, 우리는 삶을 어느 방향으로 이끌어 갈지 고민하고 목표를 세워야 한다.

진리 둘.
무엇을 시작하기에 충분할 만큼 완벽한 때는 없다.

위 문장은 영화감독 왕가위가, 작품을 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준비를 하느냐고 묻는 기자에게 했던 말이라고 한다.

무엇을 시작하기에 완벽한 때라는 것은 없다. 이 문장을 통해 우리는 스스로 너무 망설이고만 있지 않은지 반성하고 돌아볼 수 있었다. 더불어 시인께서는 "달팽이도 마음만 먹으면 바다를 건널 수 있다"고 하셨다. 이 문장의 요지는 결심해야 한다는 것이다. 마치 팔다리 없이 도버해협을 왕복해서 건넌 한 남자와 같이 우리는 결심을 통해 그 어떠한 목표도 이룰 수 있다. 모든 벽 속에는 반드시 문이 있다는 말이 있지 않은가. 결

국 그 문고리를 쥐고 돌리냐 안 돌리냐의 문제인 것이다. 즉, 모든 것은 결심에서 시작된다.

진리 셋.
새들은 바람이 가장 강하게 부는 날 집을 짓는다.

새가 바람이 가장 센 날 집을 짓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래야만 집을 튼튼하게 지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젊은 우리의 시간도 마찬가지이다. 20대라는 시간은 앞으로의 인생이라는 집을 짓는 소중한 시간이다. 당신은 1층짜리 인생을 살고 싶은가 고층 건물 인생을 살고 싶은가? 1층 자리 집은 쉽게 금방 지어진다. 기반 작업을 크게 할 필요가 없이 바로 땅 위에 집을 지으면 그만이다. 그러나 고층 건물은 이야기가 다르다. 땅을 파고 철근을 심고 콘크리트 작업을 하는 데만 몇 년이 걸린다.

그러나 그 기반 작업이 끝나면 건물은 하루가 다르게 높아져 간다. 결과적으로 1층짜리 집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크고 단단한 건물이 지어지게 된다. 인생도 마찬가지이다. 지금 어려운 일이 있다면 위 문장을 가슴속에 새기고 기억하자. 현재의 고난이 앞으로의 인생을 더욱 단단하고 강하게 만들 것이라는 사실을…

진리 넷.
의미없는 고통은 없다.

하루살이는 하루만 사는데 불행히도 하루 종일 비가 올 때가 있다. 이렇듯 고통은 삶과 불가분의 관계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고통에 어떻게 맞서야 할까. 빅터 프랭클은 말했다. 의미없는 고통은 없다고. 우리는 고통을 무조건 회피하기보다 오히려 정면으로 맞설 줄 알아야 한다. 왜냐하면 고통에 대한 견딤이 쓰임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고통을 견딤으로써 더 크고 단단한 존재로 거듭날 수 있다.

결론. "가끔 우주의 크기를 생각하라"

우리는 가끔 우주의 크기를 상상하고는 그 방대함과 신비함에 압도된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각자가 우주보다 더 큰 존재임을 알아차릴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얼마나 큰 존재란 말인가! 따라서 부정적인 욕망은 버리고 우리 자신을 소중히 여기자. 어떤 미래를 원하는지 끊임없이 탐구하고 그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정리 **김승민**〈서울대 자유전공학부 2학년 · 장학회50기〉

6월*

"천재들은 어떻게 창조적 아이디어를 역사로 남겼나?"

말씀해 주신 분 **조성관** <작가>

누구나 한 번쯤은 이런 궁금증을 가져 보았을 것이다. "세기의 천재들은 일반적인 사람들과 도대체 무엇이 달랐던 것일까?" 전 세계 다양한 분야의 천재들을 연구해 오신 '천재 연구가' 조성관 작가께서 "천재들은 어떻게 창조적 아이디어를 역사로 남겼나?"라는 주제로 강연을 진행해 주셨다. '백남준', '구스타브 클림트', '지그문트 프로이트' 이 3명의 천재들을 중심으로, 그들이 남긴 창조적 아이디어의 발자취를 되짚어 보는 시간을 가졌다.

백남준(1932~2006)

백남준은 '미디어아트'의 창시자로, 세계적으로는 'Global visionary(선지자)'라고 불릴 만큼 명망이 높지만, 연사님께서는 "한국인들이 백남준이라는 천재를 너무 못 알아보고 있다."라고 설명해 주셨다. 백남준 이전까지 모든 예술가들은 과학을 멀리하였다. 과학은 논리, 증명, 이성의 세계인 반면에 예술은 느낌, 감정, 상상력의 세계로 둘은 섞이기 힘든 물과 기름 같은 관계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백남준은 르네상스 시대의 레오나르도 다빈치 이후 전혀 이질적인 과학과 예술을 접목시킨 최초의 인물이다. 그는 독일 유학 시절, 미디어아트에 대해 "보이지는 않지만 새로운 예술이 될 것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1968년 세계 최초의 미디어아트 전시인 '음악의 전시(Music Exhibition)'를 개최하며 독일 뒤셀도르프에 미디어아트의 뿌리를 내렸다. 미디어아트의 시초가 된 독일의 베스트팔렌주(뒤셀도르프)는 "백남준은 우리가 키워냈다."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2년에 한 번씩 최고의 예술가들을 대상으로 '백남준 어워드'를 수상하고 있다. 백남준은 또한 TV의 원리와 개념을 독학하여 과학의 영역인 'Media'와 예술의 영역인 'Art'를 조합하여 TV를 예술의 도구로 승화시킨 인물이기도 하다.

구스타프 클림트(1862~1918)

오스트리아의 인상파 화가 구스타프 클림트에 대해 연사님은 '권력의 색인 황금색을 에로티시즘의 색으로 만든 인물'이라고 소개해 주셨다. 그의 작품 '키스', '다나에', '유디트', '아델레 블로흐 바우어의 초상'을 통해 우리는 황금으로 뒤덮인 작품 속 인물들이 내뿜고 있는 묘한 분위기를 고스란히 느낄 수 있었다. 클림트는 오스트리아 빈 에서는 학교에서 배운 대로 기성화단이 원하는 그림을 그리다, 최고 예술의 도시인 파리에 방문한 이후 자유로운 예술세계에 큰 충격을 받는다. 그리하여 1897년 그는 과거의 편협한 예술 양식에서 탈피하고자 '분리파'를 선언하고, 1900년에는 분리파 회원들과 일본 미술을 공부하고 연구하겠다는 명목하에 '일본 회화 특별전'을 개최한다. 그리스 문명, 로마 문명, 그리고 기독교의 정신이 내면화되어 있는 당대 유럽인들에게는 클림트가 자신의 미술을 혁신시키기 위해 동양의 미술을 받아들였다는 사실이 매우 충격적이었다. 당시 마네, 모네, 고흐 등 인상파 화가들을 매료시켰던 'Japonisme'에 클림트 역시 큰 영향을 받

았으며, 특히 17~20세기 초 일본의 풍속화 양식인 '우키요에' 에 깊게 빠져 있었다고 설명해 주셨다.

지그문트 프로이트 (1856~1939)

지그문트 프로이트는 '정신분석학' 의 창시자로, 카를 마르크스, 찰스 다윈과 함께 20세기를 바꾼 3명의 사상가 중 한 명으로 알려져 있다. "인간 무의식의 발견으로 세상은 프로이트 이전과 이후로 나뉜다."라는 말들이 있을 정도로 그의 업적은 높은 평가를 받는다. 그는 인간은 결코 합리적인 존재가 아니며, 세상을 움직이는 것은 우연과 본능이라고 주장하였다. 연사님께서는 최근 유행하는 TV 프로그램 '오은영의 금쪽 상담소' 를 예로 들어 주시며, "어렸을 적의 성적 억압과 상처들이 치유되지 못한 상태로 어른이 되면 자식들에게도 그러한 성향이 나타난다."는 프로이트의 이론을 설명해 주셨다. 유대인이었던 프로이트는 '반유대주의' 가 기승을 부릴 당시 교수 임용에서 계속 밀려나며 차별을 받았고, 47년간 본인의 진료실 겸 살림집에서 비서, 조수도 없이 홀로 여러 문명권의 미술품과 조각상들을 수집하면서 연구에 몰두하였다. 당시 파리 정신과 치료의 핵심이었던 해부학, 생리학, 최면 기법을 연구하였고, 이들로도 환자를 적절히 치료할 수 없자 '인문학' 을 정신과 치료에 접목하여 인간 무의식의 정신 구조 모델을 만들어낼 수 있었다고 설명해 주셨다. 그는 전혀 어울리지 않을 법한 문학, 미술, 고고학을 정신과 치료에 융합함으로써 정신 구조 모델 가운데 빙산의 일각인 '무의식의 영역을 인간 정신의 핵심으로 끄집어내었다.

천재는 자극이 많은 공간에서 꽃핀다.

마지막으로 천재는 서로 다른 문명이 부딪히는 '자극이 많은 공간' 에서 꽃핀다고 설명해 주셨다. 경제학과 인간 심리학을 융합하여 행동 경제학을 창시한 '로버트 쉴러' , 아카펠라와 오페라, 발라드를 융합하여 보헤미안 랩소디라는 명곡을 만들어낸 퀸의 '프레디 머큐리' , 국악과 록을 결합한 '이날치밴드' 등의 사례도 언급해 주시며, 학생들에게 다양한 자극을 받아들이는 자세가 중요함을 강조해 주셨다. "창조성의 비밀은 책에 있는 것이 아니며, 창조성은 자신과 다른, 아주 이질적인 것을 받아들이는 데에서 시작한다. 창조성의 가장 큰 적은 자기 자신에게 있다."라는 연사님의 가르침은 미래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는 학생들에게 큰 울림이 되었을 것이다.

정리 **이도현**〈서울대 경영학과 2학년 · 장학회50기〉

9월*

하고 싶은 일을 찾는 방법

말씀해 주신 분 **한재우** <재우의 서재 대표>

"커서 뭐가 되고 싶니?" 어릴 땐 이만큼 쉬운 질문이 없었다. 그도 그럴 것이, 하고 싶은 게 많았다. 내 경우엔 수학자, 건축가, 디자이너라는 직업이 바로 그것이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처한 이십 대 언저리는 '진로' 라는 막연한 책임감에 방황한다. 그토록 원하던 학교에 진학하고 나서도 "하고 싶은 일이 없어요," 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들이 많다. "정하긴 했는데 확신이 없어요." 그나마 상황이 좀 나은 사람들의 경우도 크게 다르지 않다.

대한민국 청년들은 오늘도 고뇌한다. 우리는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내일을 대해야 할까? 재우의 서재 한재우 대표님의 강연에서 그 답을 찾는다.

불안함 속에 머무를 수 있는가

한 대표님께서 제안하신 진로를 판단하는 잣대는 다음과 같다. 첫째, 더 이상 돈을 벌지 않아도 하고 싶은가? 둘째, 애초에 돈벌이가 되지 않아도 하고 싶은가? 두 가지 모두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접근이지만 이러한 질문은 진정으로 하고 싶은 일엔 머리가 아닌 가슴이 뛰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진로를 고민하고 결정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이상과 현실 간의 괴리를 느끼곤 한다. 내게 알맞은 분야를 찾아 설계하고 확장해야 할 것만 같은데, 실제로는 백지상태와 방황으로 전전긍긍한다. 이러한 상황의 주된 원인은 바로 불안함이다. 하지만 그러한 불안함 속에 고요하게 머물 수 있어야 비로소 가슴이 뛰는 일을 찾을 수가 있다고 한다.

한 치 앞길 모른다

한 대표님 역시 여러 길을 거치셨다. 서울대학교 법학과에 입학한 뒤 그는 검사가 되어야겠다는 막연한 목표를 갖고 있었다. 한땐 카페를 창업하셨다. '공정무역' 이라는 키워드에 꽂혀서 커피를 한 잔 구매하면 아프리카에 있는 일정량의 물이 정화되는 획기적인 시스템을 개발했지만 결국 그러한 분야가 본인과는 맞지 않다고 판단하여 그만두셨다고 한다. 지금은 법조계, 커피와는 다소 거리가 먼 일을 하고 계신다. 거쳐온 길이 곧 현재의 커리어에 대한 직접적인 발판이 되진 않은 것. 목표에 대한 이상적인 과정을 차근차근 밟아가지 않아도 괜찮다. 어쩌면 무엇을 하고 싶은지 모르는 것이 당연하다고 판단하셨다.

'나의 길' 을 찾기 위한 방법

첫째, 어릴 때 하고 싶었던 일에 힌트가 있다. 결국 우리가 처음 마주한 질문으로 회귀한다. 무얼 해야 할지 막연한 고민이 앞선다면, "커서 뭐가 되고 싶니?" 라는 질문에 명쾌히 대답했던 과거의 내 모습으로부터 그에 대한 힌트를 찾아야 한다. 무엇을 하고 싶은지 알 수 없을 땐 어릴 때 썼던 일기장을 들춰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둘째, 기대보다 더 하게 되는 일에 적성이 있고, 잘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일에 실력이 있다. 타인이 나에게 요구하는 수준보다 더 열심히 하고 싶은 욕구가 생기는 일이 비로소 내 가슴, 즉 무의식이 원하는 곳일 가능성이 크다. 셋째, 계획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기회가 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우리의 목표는 결코 단방향성이 아니기에 더욱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것이다.

'나의 길' 을 향해 가는 지침

나의 길이 어디인지 찾았다면 그곳을 향해 가는 방

법을 고민해야 한다. 대표님께서 제안하신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모아놓은 카드는 힘이 된다. 카드 게임할 때를 떠올려보자. 갖고 있는 카드가 다양할수록 다양한 패를 구성할 수 있다. 내게 일어나는 일 각각을 하나의 카드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이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를 판단하기에 앞서 그 경험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좋다. 둘째, 시도하지 않으면 모른다. 두 가지 사안 중에 어느 한 쪽으로 확실히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있다면, 그건 두 가지 각각에 대한 효용이 51:49라서 그럴 가능성이 크다. 이럴 땐 차라리 동전 던지기가 최선이다. 어느 쪽이든 일단 발을 내디뎌야 한다. 어떤 쪽의 아쉬움이 더 클지를 고민하는 것은 일단 시도한 이후여야 한다. 셋째, 양이 질을 만든다. 하고 싶은 일을 하면 과연 행복한가? 그것이 진짜 하고 싶은 일이라면 여전히 힘들다. 쉽게 포기하기 전에 우선 기간을 정해두고 진득하게 해보자. 넷째, 하고 싶은 것은 정하는 게 아니라 그저 '아는 것'이다. 본인의 진로를 어딘가로부터 찾으려고 애쓰는 과정은 불필요하다.

상선약수 심무가애

우리 모두는 인연 따라 살아간다. 전공과 어울리는 직업을 갖거나, 어릴 때 꿈을 성인까지 그대로 가져가는 사람은 드물다. 결국 무엇을 하는지보다 그것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태도'가 더 중요한 것이다. 우리는 가진 게 많을수록 내려놓는 것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더 크게 느낀다. 하지만 결코 우리가 할 일들을 명쾌하게 정의해낼 수 없다. 그러니 그냥 하자. 받아들이고, 받아들인 채 최선을 다하자. 최고의 선으로 불리는 물처럼, 마음에 있는 장애를 모두 내려놓고 눈앞의 한 걸음을 정성껏 걸어보자.

정리 **박상현**<연세대 경제학과 2학년 · 장학회 49기>

10월*

'조선일보 뉴지엄' 관람을 마치고

10월 4일 저녁, 추적추적 내리는 빗방울에 너도나도 우산을 들고 조선일보 뉴지엄으로 모여들었다. 광화문에 있는 재단 강의실로만 모이던 정례회가 아닌, 흑석동에 있는 '조선일보 뉴지엄'을 견학한다는 사실에 설레었다. 그리고 위엄스러운 분위기를 자아낸 뉴지엄 건물의 붉은 벽돌들은 이러한 설렘을 한층 더 부추겼다. 관람은 2층의 미디어체험관 방송 스튜디오에서 뉴스 진행 프로그램을 체험한 후, 3층의 역사기념관을 관람하는 순서로 견학을 진행했다.

흥미로운 뉴스 진행 프로그램

미디어체험관은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를 체험 대상으로 하는 만큼 어린아이들도 쉽게 이해하고 체험해볼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었다. 체험에 앞서 신문 제작 과정을 담은 영상을 시청하였는데, 취재-편집-인쇄-발송으로 이어지는 4단계의 신문 제작 과정을 확인하며 신문 제작을 위해 얼마나 다양한 사람들의 노고가 들어가는지를 이해할 수 있었다. 이후 방송 스튜디오로 넘어가 뉴스 진행 프로그램을 체험하였다. 7~8명이 조를 이루어 각자 앵커, 현장 기자, 그래미 기자, 해외특파원 등 다양한 역할을 맡아 실제 뉴스와 같은 방식으로 주어진 대본을 말하고, 촬영하는 프로그램이었다. 내가 맡은 역할은 그래미 기자로 그래미어워즈 현장을 전달하였다. 장학생들끼리 서로 어색하고, 부끄러워하면서도 각자 마이크를 쥐고 맡은 역할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고, 나 역시 열정적으로 임했다. 처음 해보는 기자 체험이었는데 화면에 흘러가는 대본의 속도에 맞추어 적절한 톤과 발음으로 카메라를 보며 말하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았다.

조선일보의 역사를 돌아보며

이어 진행된 역사기념관 견학은 재단 유 국장님의 안내로 이루어졌다. 일제강점기 당시 우리 국민과 나라, 그리고 독립운동가들을 위해 조선일보가 어떠한 노력을 했었는지 살펴볼 수 있었다. 국가 문화재로 등록되어 있는, 문자 보급 운동 당시 조선일보가 무료로 배포한 한글 원본 소책자와 문자 보급 교재를 통해 국민과 국가를 위한 조선일보의 헌신을 엿볼 수 있었다. 총독부의 악랄한 행위를 고발하고, 독립 투사들의 항일 행적을 알린 실제 기사들을 보면서 당시의 상황과 분위기를 조금이나마 직접적으로 느껴볼 수 있었다. 일제의 검열과 정간 처분, 4차례의 발간 정지와 471건의 압수

에도 불구하고 조선일보가 지키고자 했던 언론의 가치와 한국의 독립이라는 의지는 우리에게 큰 귀감이 되기에 충분했다. 심지어 1940년도에 일제에 의해 폐간됐다가 5년 만에 복간되어 조선일보의 역사를 지속해 온 과거의 행보와 그 의지는 앞으로도 절대 잊지 말아야 하는 숭고한 업적임에 틀림없다. 6 · 25전쟁 당시 조선일보 창간호를 잃어버렸다가 우연히 한 사람을 통해 창간호를 입수하였지만, 그 신문이 한자 연습 종이로 쓰여 온전한 신문이 아니었다는 사실은 장학생 모두를 안타깝게 하였다.

과거와 현재, 그리고 배움

조선일보는 1992년까지 납 활자를 이용해 신문을 발행하다가, 1993년부터 컴퓨터(CTS)로 기사를 작성하기 시작했다. CTS 이전까지 문선(文選)하는 사원들이 원고지를 보며 나무상자로 활자를 하나 하나 뽑아 반대로 뒤집어 배열하는 행위가 얼마나 고되고 어려웠을지를 생각하니 실로 대단한 작업이었음을 깨닫게 된다. 역사기념관의 한 칸에는 역대 대통령들의 휘호 액자가 비치되어 있어 역대 대통령들의 붓글씨를 직접 볼 수 있는 좋은 기회도 가졌다. 또한 박경리와 이문열, 최인호를 비롯한 유명 문학가들의 실물 원고도 그대로 보존되어 있어 그들의 필체와 원고지에 묻어 있는 그들의 문학 체취에 잠시나마 취해볼 수도 있었다.

이번 견학을 통해 조선일보라는 언론이 단순히 세상 소식을 전달하는 것을 넘어, 기사의 내용과 흐름을 다듬고, 정확하고 신속하게 전달돼 국민이 그 정보에 만족하기까지 신문은 매일 끊임없이 발간되지만, 매번 서로 다른 시선과 생각으로 다양한 정보를 전달하기에, 그리고 그러한 신문을 위해 모든 이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기에 조선일보의 가치가 숭고하다는 사실을 이번 기회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다. 견학을 마친 뒤 건물 내 레스토랑에서 맛있는 양식들을 푸짐하게 먹었다. 이번 견학은 머리와 배를 모두 가득 채운 훌륭한 모임이었으며, 이를 가능하게 해준 장학회와 조선일보에 감사드린다.

정리 **손성진**〈고려대 경제학과 3학년 · 장학회 49기〉

11월*

글로벌 회사에 다닌다는 것

말씀해 주신 분 **황성혜** <한국존슨앤드존슨 부사장>

나라와 나라 사이의 물리적인 제약이 계속 약해져 가는 지금, 국경을 넘나들며 바삐 일하는 이들이 있다. 글로벌 회사는 무엇이며 세계는 어떤 가치를 추구하고 있을까? 11월 월례회에서는 한국존슨앤드존슨 황성혜 부사장께서 글로벌 회사에서의 삶과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주셨다.

글로벌 회사란 무엇인가

글로벌 회사, 하면 떠오르는 것들이 있다. Cross-functionalcollaboration, Businesstrip, Teleconference 등이 대표적이다. 우선 글로벌 회사에서는 Cross-functional collaboration이 중요하다. 물론 타 부서와 함께 일해야 하는 것은 어느 조직이나 마찬가지다. 그러나 글로벌 기업은 위계질서가 획일적이지 않기에 단순히 상사-부하직원의 관계를 넘어선 굉장히 복잡한 형태의 협업 구조를 이루고 있다. 다음으로 글로벌 회사는 출장이 잦다. 먼 거리에 있는 사람들과 간헐적으로 만나 일을 진행해야 하니 짧은 시간에 응축된 관계를 맺는 경우가 많은데, 이 과정에서 누군가는 아침에, 누군가는 낮에, 누군가는 밤에 모여 회의를 하는 Teleconference를 경험하기도 한다. 함께 일하는 조직의 구성원들이 각기 다른 시간과 공간에 살고 있음을 가장 직접적으로 느낄 때다. 한편 모두 함께 Workshop을 떠나서는 함께 모여 아이디어를 구상한다. 한 번은 파리 외곽에서 Workshop을 가졌던 적이 있다. 허허벌판 속 고성에서 3박 4일간 긴 논의를 했는데, 독특한 공간 덕분인지 창의성이 더 잘 발휘되지 않았나 싶다.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을 향해

DE&I(Diversity, Equity and Inclusion)라는 말이 있다. 다양성, 형평성, 그리고 포용성을 아우르는 말이다. 오늘날 글로벌 기업의 핵심 가치는 브랜드 평판 향상과 창의적 아이디어를 통한 수익성 제고에 있다고 해도 무리가 없다. 그러나 이처럼 추상적인 개념만으로는 기업에서의 다양성이 무엇인지 알기 어렵다. 실제 기업에서의 다양성은 무엇을 말하는가?

지난 15년간 글로벌 회사에서 경험했던 다양성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다. 첫째는 성별, 세대, 인종 등 눈에 보이는 다름이었고, 둘째는 사람의 성향과 같이 눈에 보이지 않는 다름이었다. 이렇듯 모든 사람은

굉장히 다른 무언가를 지니고 있다. 기업에서의 DE&I는 이런 다양성을 어떠한 방식으로 인정하고 포용해 주는가와 깊은 관련을 맺고 있다. 조직에서 다양성을 말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개인이 스스로의 다름을 언급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드는 것이다. 나의 다름이 조직 내부에서의 삶을 두렵거나 어렵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 조직이 고민해야 하는 것은 다름을 포용할 안전지대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이다.

강연을 마친 후 장학생들과 기념 촬영을 했다.

기업은 왜 다른 것을 포용해야 하는가? '혁신'을 위해서다. 기존의 것에 안주하며 원래 하던 대로 행동해서는 혁신을 만들어 낼 수 없다. 혁신은 다양한 사람의 의견을 듣는 데서 시작되기 때문이다. 존슨앤드존슨은 138년의 역사를 가진 회사다. 그간 모든 CEO는 미국인이었으나 이번에 처음으로 미국인이 아닌 스페인인이 CEO로 취임했다. 존슨앤드존슨은 혁신에 근간을 두고 있는 회사고, 다양성이야말로 혁신의 뿌리라고 할 수 있다. 문화적 포용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불러일으키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연대, 공감, 진정성, 그리고 소명 의식

이토록 다른 사람들이 함께 일하기 위해 글로벌 회사에 모였을 때 그들은 어떻게 일할까? 그 답은 연대, 공감, 진정성, 그리고 소명 의식에서 찾아볼 수 있다. 먼저 연대한다는 것(allyship)은 소외된 이들을 지지하는 것을 말한다. 공동 목표를 위해 협력하는 집합 안에서는 서로의 편이 돼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스스로가 소수자라고 느낀 적 있냐는 질문을 던져보자. 가능한 모든 조직, 모든 상황에서 내가 늘 주류에 속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서로의 편이 되어 줌으로써 연대할 수 있다.

연대와 함께 공감(empathy)이라는 개념도 있다. 공감의 사전적 정의는 '남의 감정, 의견, 주장 따위에 대해 자기도 그렇다고 느낌, 또는 그렇게 느끼는 기분'이다. 그러나 글로벌 회사에서 요구되는 '공감'은 단순히 훌륭한 '공감 능력'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상대방의 입장이 어떤지를 아는 것은 나 스스로에게도 힘이 된다. 공감은 내가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 행하는 것이 아니다. 공감은 감정이 우선시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상대 행위의 의도를 파악하고 이에 더 잘 대응하기 위해 필요하다.

다음으로 강조되는 것은 진정성(authenticity)이다. 결정적인 순간에는 진심이 통하기 마련이다. 과거 국민건강공단과 항암제 관련 협상을 진행할 때 진정성의 힘을 느꼈다. 어쩌면 아무리 훌륭한 계획을 준비해 갔더라도 결렬됐을 수 있는 협상이었는데, 해당 협상을 성공시킬 수 있었던 것은 다름 아닌 내 개인적인 경험과 환자들에 대한 공감으로부터 발생한 진정성 덕분이었다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는 소명 의식이 중요하다. 글로벌 회사는 일의 의미를 찾는 것,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하는지 아는 것을 강조한다. 일에 대한 소명 의식을 명확히 가지고 있는 준비된 사람과 그저 일 그 자체를 목적 삼아 일하는 사람, 그 둘 사이에는 확연한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정리 **박세은** <서울대 국어국문학과 2학년 · 장학회 50기>

new books

영원한 대기자 조용중(남시욱 외 공저)

유수 신문의 편집국장과 경영인을 역임한 논객 조용중 선생의 업적을 선생의 작품과 함께 그분과 각별한 인연을 가졌던 언론인들과의 일화 등을 모아 한국 언론사에 기록으로 남기고자 펴냈다. 글방과 책방, 25,000원

창작의 순간(조인원 지음)

자신만의 독특한 방법으로 사진과 영상을 작업하는 사진가들을 예술, 광고, 다큐, 인물 등 각 분야별로 만나서 그들이 갖고 있는 사진의 주제 찾기와 촬영 방법, 그리고 사진에 대한 철학을 들어본다. 타임라인, 17,000원

대한민국, 선진국의 조건(김세형 지음)

한국이 현재의 어정쩡한 선진국 상황에서 벗어나 확고한 선진국으로 자리매김할 5만불 시대, 10만불 시대를 끌어내기 위한 조건이 무엇인지, 언제쯤일지 그 조건과 미래를 예측하고 해답을 구해본다. 시공사, 20,000원

초상권의 진화(류종현 지음)

언론이 인격권을 침해한 초상권 문제는 많이 개선되고 있지만 아직도 매우 미진하다고 본 필자가 법조문을 살펴가며 초상권의 판례와 사례를 들어 설명하고 공론화하여 미디어 환경의 새 지평을 열고자 한다. 예성출판사, 13,000원

지역재생의 진실(정윤성 지음)

지역자원 개발, 지역 자율공동체, 지역인재 교육, 지자체 경쟁력 강화 등 지방의 미래 존망이 걸려 있는 수많은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지를 진단하고 대응 방안을 제시한다. 씽크스마트, 14,000원

시진핑의 중국몽과 미디어 전략(정원교 지음)

'시진핑이 제시한 지도사상' 이라는 브랜드가 붙은 중국몽과 미디어 간 관계에 초점을 맞춰 중국몽을 실현하기 위해 중국공산당이 미디어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를 살핀다. 나남, 32,000원

프리한 10대 미디어 프리(강병철 지음)

미디어가 우리 생각과 행동을 지배하는 방식을 밝히고 이런 지배에서 벗어나 삶을 풍요롭게 만들 수단으로써 미디어를 어떻게 주체적이고 비판적으로 활용해야 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그 방향을 제시한다. 푸른들녁, 16,000원

속속들이 베트남, 한자 속의 베트남(이동관 지음)

대표적 관광 국가인 베트남의 인명과 지명은 우리와 같은 한자어. 베트남어 속에 녹아있는 한자를 실마리로 베트남과 베트남 사람, 베트남의 역사와 문화를 파헤쳐 베트남어 공부를 위한 참고서 역할과 베트남어에 대한 거부감을 덜어준다. 글씨미디어, 18,000원

교육소비(이종승 지음)

'교육소비' 라는 프레임으로 한국교육을 진단해 진학 위주의 교육이 가져온 양상, 원인, 결과를 분석한다. 한국교육이 교육소비를 넘어 성장 동력 역할을 하고 한국만의 교육시스템을 갖기 위한 대안도 제시한다. 다산글방, 17,000원

꽃으로 토지를 읽다(김민철 지음)

박경리 소설 '토지' 의 주요 등장인물에 다가가면서 이 인물들이 어떤 꽃-나무에 비유했는지 살펴보고 꽃이 어떤 대목에 나오는지, 그 꽃은 어떤 꽃인지, 그 꽃이 다른 소설에서는 어떻게 나오는지 등을 살펴본다. 한길사, 18,000원

new book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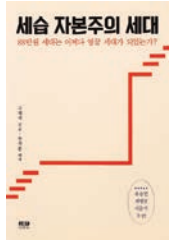
new books

한국 술 열전(박순욱 지음)

세계 명품주를 꿈꾸는 한국 양조장들의 이야기. 현재 우리 농산물로 우리 술을 만드는 양조장들은 전국에 수백 군데이다. 이를 소개하고 전통 양조장 창업을 준비하는 이들을 위한 길라잡이 역할도 한다. 헬스레터, 30,000원

영국에는 젠틀맨이 없다(장일현 지음)

영국이 어떻게 거대한 제국을 세울 수 있었는지를 의회, 국가주의, 재정개혁, 철학 등을 분석해 그 원동력이 무엇인지를 밝히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을까를 고민해 본다. 북랩, 15,800원



세습 자본주의 시대(고재석 지음)

현재 20대와 40대, 50대는 사회 공론장에서 전성시대를 누리는 반면에 80년대 출생 30대는 공론의 장에서 소외됐다. 80년대생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힐 책이 필요한 시점으로 이들에 대한 심층취재기. 인물과사상사, 19,000원

아무도 데리러 오지 않았다(이혜민 지음)

1994년 이후 남한에 돌아온 한국전쟁 국군포로는 80명. 이들은 '국가가 나를 지켜주지 않았다'는 생각을 지우지 않았다. 미귀환한 국군포로를 구출하지 않는 정부를 보며 이들 가운데 현재 생존한 9명이 들려주는 이야기. 깊은바다 돌고래, 16,000원

THE REAL 이건희(권세진 지음)

저자가 단독 입수한 고 이건희 삼성그룹 전 회장이 생존 당시 삼성 임원들에게 당부한 업무 지시 및 경영철학 관련 음성파일 내용을 소개한다. 현명관 전 삼성그룹 비서실장이 감수했다. 조선뉴스프레스, 20,000원

메타버스 세계의 융복합 콘텐츠(조순정 외 공저)

메타버스의 혁신 사례와 이론 분석, 방송산업 지형의 변화, 가상경제의 진화, 메타버스 저널리즘, 공간과 시간을 재구성하는 사회문화를 제시하고, 경쟁력 확보를 위한 융합콘텐츠의 실제를 체험한다. 이담북스, 22,000원

AI 저널리즘(박창섭 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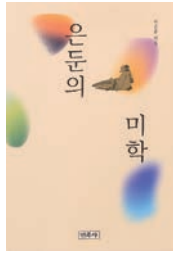
로봇 저널리즘이 기자, 미디어 산업, 그리고 이용자 차원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어떤 변화를 가져올 것인지를 분석. 언론이 로봇 저널리즘을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어떻게 준비할 수 있는지 탐색한다. 두리반, 19,800원

부산 백 년 길, 오 년의 삭제(이준영 지음)

부산의 길 탐사기. 문재인 정권 5년간 유례없는 집값 폭등은 부산의 길을 바꿔 놓았다. 부산 100년의 길이 5년 만에 사라진 현장을 소개한다. 호밀밭, 16,800원

남북 전략문화와 북한 핵 가스라이팅(김문경 지음)

30년간 지속돼온 북의 핵 개발 습관은 핵으로 권력을 행사하며 '가스라이팅' 하겠다는 의도. 남북 갈등 원인은 권력투쟁보다 습관에서 비롯된 전략 문화적 성향이 더 크다. 남북 갈등의 해법도 제시한다. 북랩, 17,000원



은둔의 미학(이은윤 지음)

역대 은사(隱士)들의 시가를 중심으로 은사 문화의 윤곽을 살피고, 도시 문명에 찌든 현대인들이 동경하는 전원생활의 의미를 은사 문화에 융합시킨다. 민족사, 35,000원

new books

new books

그래도 뉴스는 진화한다((심영구 지음)

보도 사례를 통해 저널리즘의 가치와 새로운 시도, 시청자와 독자의 관심을 끌기 위한 노력 등 진화하는 방송 환경과 언론이 지향하는 가치를 정리한다. 북팟, 18,100원

저널리즘과 질문의 자격(김사승 지음)

저널리즘 질문이 갖는 역할과 의미의 분석을 통해 저널리즘이 질문의 사회 시스템임을 밝힌다. 저널리즘 질문이 갖추어야 하는 조건들을 분석하고 질문을 통한 저널리즘의 정당성, 본질, 역량, 프레임 등에 이르기까지 질문전략을 분석한다. 커뮤니케이션북스, 27,500원

정약용의 음악이론(김세중 지음)

정약용의 음악이론 작품 '악서고전' 은 음악적 오류와 무리가 많다. '악서고전' 의 전체 얼개와 요지를 표-도해와 함께 해설하고 비판까지 나아간 해제서이다. 민속원, 31,000원

독일 언론법의 이해(이수종 지음)

독일 언론법과 미디어법 법리 및 연방헌법재판소를 비롯한 각급 법원의 판례 소개. 표현의 자유 및 한계, 출판의 자유, 의견 표현과 사실 주장 등의 법적 쟁점, 인용에 있어서 발언자와 언론사의 책임 등을 정리한다. 이담북스, 35,000원

뉴스의 비유 왜곡(이권효 지음)

뉴스에 자주 나타나는 비유 가운데 피상적이고 상투적으로 의미를 왜곡하는 사례를 성어, 동물, 사물로 구분하여 비판적으로 성찰한다. 북랩, 18,000원

붉은 항일(황대일 지음)

사회주의자들이 한국 독립에 기여했다는 것은 허구. 광복 이후 북한의 일제 청산도 거짓. 지금의 좌파가 모델로 삼은 프랑스 역사 청산도 모순. 러시아 외교문서와 국내 논문을 토대로 좌파들의 도덕적 우월론을 반박한다. 기파랑, 17,000원

여성, 스크린을 넘어 스토리가 되다(이은숙 외 공저)

오락 프로그램과 OTT 시리즈, 영화에 이르기까지 대중문화가 여성들의 변화를 어떻게 담아내고 있는지를 흥미진진하고 성실하게 담았다. 조윤커뮤니케이션, 17,600원

정의로운 도시를 꿈꾸며(윤현석 지음)

광복 이후 압축 경제 성장으로 초래된 국토 불균형, 도시 공간의 왜곡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국토 · 도시 공간의 패러다임을 획기적으로 바꿔야 한다. 도시 공간을 경제 발전의 도구나 효율의 상징으로 보는 인식에서 벗어나 지방자치와 분권의 사고로 전환해야 한다. 한울, 29,800원

다시 보는 우리 것의 아름다움(박삼철 지음)

선사시대 부산 패총 조개 가면에서 출발해 백제대향로와 신라금관, 고려대장경과 청자, 조선시대 한글과 진경산수 등을 일람하면서 고유의 미를 길러온 우리 민족의 삶과 예술 역사를 안내한다. 삼인, 27,000원

스토리테크 전쟁(류현정 지음)

넷플릭스, 아마존, 애플, 쿠팡 등 빅테크 기업들의 대공세와 전통의 스토리 강자 디즈니, 워너브러더스 등의 대응 전략. 네이버, 카카오 등 K모델의 성장까지 글로벌 기술 기업들의 고객 유지 전쟁을 조망한다. 리더스북, 19,000원

수토 기행(안영배 지음)

성리학자들에서 유래된 수토(搜討), 이들은 신선 사상에 심취했고 역사의식에도 진취적이었다. 이 땅에서 수토를 해 온 행적을 추적해 수토의 전통을 현대에 되살린다. 덕주, 20,000원

부자 미국, 가난한 유럽(손진석, 홍준기 공저)

미국과 유럽의 갈수록 커지는 경제적 격차의 현상과 원인을 분석한다. 이를 토대로 우리나라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여 국내 기업인과 투자자들에게 훌륭한 길잡이가 되고자 한다. 플랜비디자인, 19,000원

new books

방일영문화재단